



No. 47

2020 Winter

## CONTENTS

- 01 2020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 개최
- 02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 03 농생대 주요소식
- 11 학부 · 부속시설 소식
- 12 동창회 소식
- 14 퇴임교수 인터뷰
- 18 신입교수 인사
- 20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 23 학생 일반
- 25 장학금 수혜자 기고문
- 26 발전기금 출연자 인터뷰
- 27 발전기금 출연내역
- 28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혜택 및 출연방법 안내
- 31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

## Headline

### 2020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 개최



시상식 기념촬영(아랫줄 왼쪽부터 김도순 교수, 조성인 교수내외, 최인규 교수내외)

2020년 11월 12일(목) 11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2020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은 농생명과학 분야 교육과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해 1991년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故 한인규 명예교수의 기금 출연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교육 · 연구 · 사회봉사 등 큰 업적을 이룬 교수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남다른 열정, 탐과 노력, 헌신으로 큰 업적을 이룬 교수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을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어진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조성인, 최인규, 김도순 교수 외에도 오세정 총장 및 본부 보직 교수를 비롯한 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했다.

### — 수상자

#### |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성인 교수

조성인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공학과(현재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교수 임용 이후부터 “전기 · 전자, 센서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연구와 교과목을 강의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자동화와 무인화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조성인 교수는 114편의 학술지와 178편의 학회논문을 발표하였고, 12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12권의 저서와 역서를 저술하였다. 또한, “전자혀(Electronic Tongue)”로도 잘 알려진 조성인 교수의 맛센서 연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등의 중앙지와 SBS, EBS 등의 TV 프로 및 과학잡지 등에 소개되어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연구력을 널리 홍보하였다.



# Headline

조성인 교수는 교내외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여 농생대와 서울대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농생대 기획실장을 역임하면서 식물병원을 설립하였고,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신설을 주도하여 서울대학교가 국제농업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농업 분야 국제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운영, 재정 확충,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국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10일에 설립된 “(사)한국농업인공지능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

### 농림생물자원학부 최인규 교수

최인규 교수는 2003년 본교 산림과학부로 부임하여 환경재료과학 전공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 왔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목재의 주요 성분인 리그닌 및 추출물의 화학적 응용,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케미컬화학, 미생물 이용 난분해성물질 분해 등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된 목재성분의 고부가가치 이용 및 환경 소재화 관련 특허 30건은 환경재료과학 기술의 산업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인규 교수는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교내 보직 수행 및 대외 위원회 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며,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하여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대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상 |

### 농림생물자원학부 김도순 교수

김도순 교수는 전공분야 교육에 있어서 작물생리와 잡초과학과 관련된 이론 강좌와 현장중심의 실험실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작물학도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항상 애정과 진심을 담아 MT 등의 학생 행사 참여는 물론 신입생과 신입생 면담지도에 임하는 등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김도순 교수의 연구 분야는 작물생리학과 잡초과학으로 분야가 매우 넓지만 균형 있고 선도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으

며, 또한 학내외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서울대학교와 농학계 및 농산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 농림생물자원학부 양태진 교수

농림생물자원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양태진교수는 11월 9일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에서 수여하는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하였다.

서울대는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 이후 매년 우수 연구 교수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인문·사회계열 3명, 이공계열 4명, 의약학계열 3명의 교수님이 선정되었다.

양태진 교수는 약용식물과 유전체학 분야에 210편의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인삼 유전체를 해독하고 유전체 육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백수오와 식방풍 등 우리나라 고유 약용식물자원의 발굴, 유전체 육종연구, 식물자원 바코딩연구 등을 수행하며 매년 20명 정도의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6명의 석사, 박사 학위 학생을 배출하였다.

2018년 상록연구대상, 인삼학회 학술상, 2019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 대통령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유망 자원식물의 수집, 개발, 진화와 유전체 육종 연구, 융복합 연구 및 약용식물 바코딩 기술 확립 등 실용화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육종학회 회장과 신설 농림생물자원학부장, 그리고 BK21사업단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주요소식

## 1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 학과(부) 신설

BK21 사업 지원을 위한 학문적 융합 기반 마련 및 연구중심 학부 통합 신설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 과정 중 기존 3개 학부(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가 폐지되고 1개 학부(농림생물자원학부) 및 1개 학과(바이오시스템공학과)가 신설되었다.

작물생명과학, 원예생명공학, 산림환경학, 환경재료과학, 바이오소재공학의 5개 전공은 식물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전공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었으나 학문간 융·복합 연구와 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 통합 신설되었으며 바이오시스템공학과전공은 농업기계 및 스마트팜 공학 고유의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 중심 학과로서 틀을 마련하고자 단독 학과로 개편되었다.

해당 학칙 개정에 따라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폐지된 학부로 입학한 재적생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설 학부,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학생 본인이 소속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재적생으로 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신설	
학부	전공 (교과과정상)	학부	전공 (교과과정상)
식물생산 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농림생물 자원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원예생명공학전공		원예생명공학전공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		산림환경학전공
	환경재료과학전공		환경재료과학전공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바이오시스템 공학과	바이오시스템 공학전공
	바이오시스템 공학전공		

## 2 BK 사업단 사업 선정

### 4단계 BK21 사업 선정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양성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에 농업생명과학대학 3개 교육연구단이 선정되었다.

4단계 BK21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미래인재 양성사업 유형에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양태진), 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단장 조철훈), 혁신인재 양성사업 유형에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단장 김학진)이다.

총 2조 9천억원(연간 4,080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4단계

BK21 사업은 올해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총 7년간 진행된다.

농생대 4단계 BK21 최종선정 결과표)

유형	교육연구단명	교육연구단장	총 사업비
미래인재 양성사업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양태진	14,952백만원
미래인재 양성사업	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	조철훈	13,300백만원
혁신인재 양성사업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김학진	6,888백만원

### 단장 인사말

#### ●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

##### | 단장 양태진 교수

반갑습니다. 농림생물자원학부 학부장과 BK21 사업 '농림생물자원창의인재양성사업단' (Agriculture-forestry Bioresources Convergence Center: ABC) 단장을 맡은 양



태진 교수입니다. 농학, 원예, 임학, 임산가공, 잠사학과를 전신으로 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 변신과 발전을 해온 작물생명과학, 원예생명공학, 산림환경과학, 임산가공학, 바이오소재 전공은 2020년 9월 새로운 변신을 하며 5개 전공이 행정적으로 완전히 융합된 새로운 학부로 전체 40명의 교수님이 포함된 '농림생물자원학부'를 구성하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7년간 약 110억 원의 지원을 받는 ABC 사업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그린바이오산업의 부흥과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더불어 우리 고유 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생산 및 생명공학과 관련한 연구와 생물 소재 공학 및 산업화의 융합 교육 및 연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담아 ABC 사업단은 농림생물자원에 대한 재배, 생산, 저장, 육종, 생명공학 연구뿐 아니라 가공과 소재 공학까지 포괄하는 종합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교육과 연구의 산실이 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BC 사업단은 32명의 교수진과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의 170명 대학원생과 다수의 우수신진연구인력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은 5개 전공 간 교차교과목의 개발, 통합교과목 개발, 농림생물자원 콜로키움 개설, 산학전문가 교류 및 교육과 인턴 기회 확대 등 바이오산업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과학자 교류 및 대학원생들의 국제공동연구 기회를 확대 지원하여 글로벌 리딩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소식

## ● BK21 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

### | 단장 조철훈 교수

농생명공학은 농생명자원을 발굴하고, 개발, 활용하여 생명산업 전 분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의 융복합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생명공학 연구는 미래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BT 중심의 융복합 생명연구(BIT, BET, BNT, BCT)의 기반을 확보하고, 식량과 환경 문제에 진화된 해법을 제공하여 인류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적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은 지난 1999년부터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략적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수월성 강화, 그리고 국내 농업 및 관련 생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선배 교수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1-3 단계 BK21사업을 수행하여 다학제적 융합 연구와 교육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생명공학을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분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4단계 BK21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연구단의 비전은「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농생명 지식공동체로 인류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전체 교수진과 120여 명의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과정 학생들이 각자의 세부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함께 농생명공학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생명공학 선도그룹으로 도약(SNU-AgBIO4.0)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단계 BK21 사업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학장님 이하 대학 구성원과 교육연구단을 위해 믿고 헌신해 주신 농생명공학부 구성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BK21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 | 단장 김학진 교수

안녕하세요?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BK21 4단계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김학진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연구단은 미래 스마트농업을 이끄는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학문후속세대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 스마트팜 연구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단은 2020년 9월에 신설된



농학-공학-인문사회 융합학문인 글로벌 스마트팜 융합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종자생명-정밀농업-농기계-농업환경-시설공학-농경제-농교육을 전공한 총 19명의 교수진과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의 총 50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단은 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공학 등의 새로운 학문을 전통적인 농업 학문에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팜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에서는 산학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원생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교과목을 통하여 스마트팜 산업체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 참여는 물론 해외 우수대학과 협력체결을 통해 공동 심포지움 개최,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를 활발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연구단이 목표로 하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융합혁신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K21 사업단 직원 인사말

### ●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이윤혜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일자로 농림생물자원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직원으로 발령된 이윤혜입니다. 현재 농림생물자원학부 4단계 BK21사업 참여 학생 관리 및 신진연구인력 임용과 회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 이현정

안녕하세요. 4단계 BK21 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 직원 이현정입니다. 지난 1~3단계 BK21 농생명공학사업단에서와 같이 앞으로도 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서정아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2일자로 BK21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에서 일하게 된 서정아입니다. BK21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김학진 단장님과 18분의 교수님 그리고 연구원분들을 도와 BK사업단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의 도움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단을 위해서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소식

## 3 국제협력센터 개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20년 12월 1일 오전 11시 농생대 국제협력센터 (Global Cooperation Center)의 개소식을 가졌다. 본 행사에는 이석하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정진철 국제협력센터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제협력센터는 국외 교육기관과의 학술활동 및 협정체결, 국외 대학/기관/회사 등과의 협력 사업, 외국인/기관에 대한 각종 대학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협력센터는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에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글로벌 하이테크 농업 네트워크의 글로벌 허브로 GHAI (Global High-Tech Agriculture Institute)를 구축함으로써 개도국의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운용하고, SNU의 글로벌 인재 유치 기회로 활용토록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4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융합전공 신설 및 선발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협동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융합적 교육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대학원 과정의 전공으로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석사·박사과정 수료요건,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내 융합전공 글로벌스마트팜 및 지역·공간분석학전공을 신설하였다. 2021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신청은 2020.10.28.(수)부터 11.3(화)까지 진행하였으며, 선발결과는 2020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지원 자격은 1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6학점 이상 취득(취득예정 포함)한 융합전공 참여 학과(부) 소속 학생으로 제한하며 학생의 소속은 입학 시의 원 소속 학과(부)를 유지한다.

## 융합전공 승인 및 운영현황

전공	주관 학과(부)	참여대학/학과	선발인원		
			석	박	석박 통합
융합전공 글로벌 스마트팜 전공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 일반대학원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농경제사회학부, 농산업교육과 - 국제농업기술대학원 : 국제농업기술학과	30	16	5
융합전공 지역·공간 분석학전공	농경제 사회학부	-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사회학부 - 사범대 : 지리교육과 - 국제농업기술대학원 : 국제농업기술학과	10	10	5

## 5 75동 재건축 진행

###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실시 설계진행



75동 재건축 투시도

현재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사용하는 200동 건물은 2003년 8월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세워졌으며, 106명의 전임교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농업생명과학대학은 교원 정원이 점차 늘어나 2020년에는 125명이 되었고, 연구비 역시도 두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로 인해 200동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공간이 가장 부족한 단과대학 건물 중의 하나로,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동 건물 인근 대학신문 건물을 재건축하여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축을 2016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다. 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 274억원은 국고 출연금과 함께 농생대 자체 예산 절감 및 동창회 등 기부자들

# 주요소식

의 도움으로 마련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대학본부의 역사연구기록관과 대학신문, 서울대 동창회가 함께 입주할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 6층에 연면적 10,656m<sup>2</sup> (3,229평) 규모이다. 현재 대학본부의 건축 심의절차는 완료되어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 기존 대학신문사 건물은 2021년 2월 중 철거될 예정이며 2021년 4월에 착공되어 2023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 6 기부자의 벽 현판식 행사

기부자의 벽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기부금을 출연한 인물들을 기념하고자 만든 뜻깊은 공간으로, 기부자의 명판을 농생대 2층 로비 측면의 벽에 부착하여 기부자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2020년에도 꾸준히 기부자들께서 기금 출연을 해주셨고, 이에 농생대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기부자의 벽 현판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 7월 10일에는 SFU(Seohyun Foundation Uganda)의 이현수 이사장님께, 8월 10일에는 도부라이프텍(주) 김일순 회장님께, 9월 16일에는 이성계 동문(농화학79)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부자의 벽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상황으로 행사는 인원을 제한하여 간소히 진행하였다



SFU(Seohyun Foundation Uganda) 이현수 회장



도부라이프텍 김일순 회장



이성계 동문(농화학79)

## 7 협약체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대동공업(주) 업무협력협약식 개최



대동공업(주)와의 협약체결 기념촬영

스마트팜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및 정밀농업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력 협약식을 2020년 4월 17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개최하였다. 대동공업(주)의 원유현 대표이사 등 5인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석하학장 등 집행부가 참석하였다.

스마트팜농업 전문인재 양성과 정밀농업 기계시스템 연구를 위한 대학원생 인턴십, 정밀농업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스마트 농업기계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협약 체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과 스마트팜 교육연구단의 실습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용,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 기술 공동 실증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2020년 4월 27일에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주요소식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원 등 9개 기관 협약 체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원,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한국농업인단체연합, kt 제주사업단, 중국자동차첨단기술산업연맹, 대동공업(주), (사)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와 전동 자율주행 농업기계 연구개발 및 현장 실증시험을 위해 2020년 5월 27일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한국식품산업협회 업무협력 협약식



한국식품산업협회와의 체결식 기념촬영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식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식품 융합기술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 30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행사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석하 학장, 김현석 학생부 학장, 농생명공학부 유상열 교수, 이기원 교수가 참석하였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을 회장, 이광호 부회장, 조일호 전무 이사가 참석하였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광양시청 협약 체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상호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분



광양시청과의 업무협약 기념촬영

야 교류,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을 통한 협력사업 공동참여와 인적, 물적 자원 상호지원 등을 위해 2020년 11월 18일 광양 시청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 8 2020 농진청·농대협·농과협 공동워크숍 개최



단체기념촬영

일시(분)	내용	비고
14:10 ~ 14:30	20 차담회(국회의원, 청장, 협회장 등)	웨이팅룸
14:30 ~ 14:40	10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농대협·농과협 사무국장(김학진)
14:40 ~ 14:45	5 개회사	농대협·농과협 회장(이석하)
14:45 ~ 14:50	5 환영사	농촌진흥청장 (허태웅)
14:50 ~ 14:55	5 축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이개호 의원)
14:55 ~ 15:00	5 축사	노동영 연구부총장 (서울대학교)
15:00 ~ 15:40	40 발표1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변화 예측과 농업에 주는 시사점
15:40 ~ 16:20	40 발표2	코로나19 이후 농업 R&D 혁신 방향과 과제
16:20 ~ 16:35	15 휴식	
16:35 ~ 17:15	40 발표3	코로나19 이후 소비자트렌드 변화와 농업에 주는 시사점
17:15 ~ 17:30	15 발표4	코로나19 이후 농진청 R&D 사업기획 방향
17:30 ~ 17:40	10 발표5	융·복합 시대의 농업 R&D 인력채용 및 지원
17:40 ~ 18:20	40 종합토론	농대협·농과협회장 (최장)
18:20 ~ 20:00	100 만찬	회의장

워크숍 세부 일정

2020년 11월 11일(수) 14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2020 농진청-농대협-농과협 공동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이석하 농대협·농과협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의 환영사, 노동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200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여 올해 10회를 맞이한 농진청-농대협-농과협 공동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의 농업 분야의 미래'라는 주제로 총 5개의 발표를 진행한 후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관련 집합인원 제한을 준수하여 농진청, 농대협, 농과협에서 50여명의 인원만 참석하였다.

# 주요소식

## 9 2020년 농업생명과학대학 냉난방기 공사 작업 진행

농생명과학대학에서는 2020학년도 여름방학 중 교수연구실 87곳에 개별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농생대의 총 140개 교수연구실 중 87개의 연구실에 개별 난방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번 공사를 통하여 농생대 모든 교수연구실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2017년부터 교수 연구지원을 위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집행부의 수년간 설득으로 시설지원과에서 석면텍스 철거공사(1백만원)를 포함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고, 총 567백만원의 예산(본부 300백만원 지원, 농생대 자체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된 농경제학 전공 교수회의실



개별 냉난방기 설치가 완료된 산림환경학전공 신입교수 연구실

예산 267백만원)으로 냉난방기 공사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통해 24시간 주말 상관없이 좋은 환경을 공급할 수 있는 개별 냉·난방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농생대 교수님들께서는 그 동안 야간 및 주말에는 개별 냉·난방기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 10 QS Ranking

2020 QS 세계대학평가 - 학문 분야별 순위 농림학 분야 28위 기록

QS세계대학평가는 영국의 권위 있는 교육컨설팅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매년 발표하는 대학평가로 고등교육 평가 리서치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이번 2020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학교는 종합 37위를 기록했고,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 농림학 분야 28위를 차지하였다.

서울대학교 농림학 분야의 QS ranking은 매년 꾸준히 그 순위를 갱신하여, 2018년에는 34위, 2019년에는 31위를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28위를 기록하였다. QS 대학평가의 순위는 학계(연구)평판도, 졸업생 평판도(석사 학위자 피고용능력), 논문당 피인용도, H-index(교수 생산성 및 영향력)의 4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한다.



출처: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ies/seoul-national-university>

## 11 (재) 목운문화재단 봉정식 개최

2020년 11월 13일(금) 11시부터 천안공원에서 목운문화재단 20년사 및 수필집 봉정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봉정식은 목운문화재단의 창립 20년을 기념하고故한인규 초대이사장의 수필집『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를 봉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00년에 설립된 (재)목운문화재단은 농업생명대학과학의 초대 직선학장으로 11대 학장을 역임한故 한인규 초대이사장(명예교수)이 설립한 재단이다. 목운문화재단은 그동안 국내

## 주요소식

외 각급 학교 62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총 8억 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매년 한 권씩 총 20권의 재단소식지와 총 32권의 재단 총서를 발간했다.

행사는 이석하 이사장(농생대 학장)과 유장렬 한림원 센터장의 묘소 헌화 및 인사말로 시작하여 『목은문화재단 20년사』,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책 소개, 봉정,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는 재단 임직원 및故한인규 초대이사장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25명 이내로 참석하였다.



봉정식 기념촬영

### 12 2020년도 제28회 화농상 시상식 개최

2020년 12월 9일(수) 11시부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8회 화농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한 화농상은 농생명 과학 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후학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초대 학장이었던 화농 조백현 선생님께서 상금과 비용을 쾌척하심으로 1986년 3월 16일에 선생님의 아호를 따서 화농장학회를 창립하였고 “화농상” 시상제도가 마련되었다.

1987년 2월 28일 제1회 “화농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농생명분야 연구개발에 큰 업적을 이룬 교수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남다른 열정, 탐과 노력, 헌신으로 큰



화농상 시상식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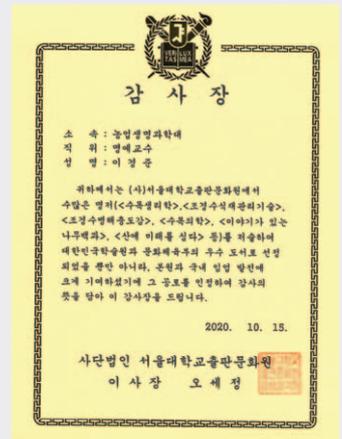
업적을 이룬 교수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을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어진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조병관(충남대) 교수 외에도 화농연학재단 이사장이신 이석하 학장, 김학진 기획전략본부장, 재단 이사이신 권순국·최운재·최양도 명예교수, 재단 감사이신 김기선 교수 및 김기석 농생대 교수께서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했다.

### 13 이경준 교수 감사장 수상

이경준 명예교수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이례적으로 감사장을 받다

이경준(李景俊) 교수는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수목생리학, 조경수식재관리기술, 수목의학, 조경수병해충도감, 이야기가 있는 나무백과, 산에 미래를 심다(현신규 박사 전기)를 출판하였는데, 이 중에서 세 권이 학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이 교수의 저서는 누적 발행부수 53,800부를 기록했으며, 지난 10월 15일 개고기 기념일을 맞아 출판문화원 이사장(오세정 총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출판문화원이 교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수목생리학’은 1993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숲 해설가와 나무의사 자격



감사장수여기념촬영(왼쪽부터 이경준교수, 정병설 원장)

# 주요소식

시험 응시자들의 필독서로 읽히고 있으며, 스테디셀러로서 누적 발행부수 19,000부를, 그리고 2001년 출간된 조경수식재 관리기술은 18,300부를 기록하여 출판문화원 역사 이래 전공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이다. 서울대의 많은 전공 분야 중에서 농생대 산림과학 분야에서 독자층이 넓은 책을 확보한 것은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산림과학 분야의 외연이 넓어지고 산림문화가 국민 생활 속에 깃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14 농업미생물사업단 선정

농업미생물사업단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농업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한다는 비전 아래 국가 농업현장 환경 개선 등 농촌사회 경제와 복지의 향상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달성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하고자 선정되었다.

농업미생물사업단은 농촌진흥청 내부 연구 인력과 더불어 대규모 우수 민간 연구 인력(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을 확보하여 유기적 협력 연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농업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핵심 3대 분야 내 20개 중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관식 사업단장을 필두로 한 사업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둬으로써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총 5년(3+2, 2단계 추진)의 사업기간동안 총 사업비 380억 규모로 농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3대 분야 내 최대 20중점 과제를 산·학·연 공동 연구 형태로 추진한다.

### 단장 인사말

#### ●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미생물사업단

##### | 단장 장판식 교수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에 출범한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미생물사업단 (Center for Agricultural Microorganism and Enzyme, CAME) 단장 장판식(농생명공학부)입니다. 본 사업단(CAME)에서는 2단계의 엄정한 평



가과정을 거쳐 20개팀(80억원/년, 5개년)의 핵심과제들을 선정하였으며, 이 과제들은 향후 탁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세계의 농업미생물 및 효소 분야 연구 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농업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한다는 비전 아래 (1)미생물 활용 농업폐플라스틱 분해기술개발 (2)군집미생물을 활용한 잔류농약 저감기술개발 (3)국내 농산물 유래 효소자원 실용화 기술개발 등의 주요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 농업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미생물·효소자원 신소재 및 신기술 확보를 통해 농촌사회 경제와 복지의 향상이라는 시대적 소명 달성을 위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페비닐/폐플라스틱 및 잔류농약 분해를 위한 유용 미생물을 분리·동정하여 기능을 분석하며, 핵심유전자를 파악하고 관련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페비닐/폐플라스틱/농약 분해를 통한 환경오염, 나아가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농업 폐비닐/폐플라스틱 및 잔류 농약을 분해하는 미생물/효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차별성 있는 농업 미생물과 효소를 탐색/분리/동정 하되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여, 구득한 미생물/효소의 특이적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적용하는 생물반응기도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업 관련 미생물 및 효소 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페비닐/폐플라스틱/난용성 물질(농약, 지방질) 분해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세계적인 난제 해결을 위한 triggering age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초 및 기반 연구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넷째로, 개발한 기술들을 특허화하고, 국제적인 농업 미생물/효소들을 등록 및 우선권을 확보하여 개발한 연구결과를 실용화/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페비닐/폐플라스틱/잔류 농약성분 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나 효소를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가 친환경적인 농업 미생물 및 효소 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생명공학산업을 부양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부 · 부속시설 소식

방법”, 쉐젠후이군은 “열에너지 저장시스템의 고효율화를 위한 나노셀룰로오스 활용”에 대한 연구발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 부속시설 소식

### 남부학술림 2020년 제2기 단기임산물 소득증대과정 운영

2020년 9월 14~19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은 2020년 제2기 단기임산물 소득증대과정을 운영하여 총 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남부학술림이 서울대학교의 교육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단기임산물 소득증대과정은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2018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과정까지 총 6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단기임산물 소득증대과정은 지역사회 임업인 및 예비임업인의 임업 이해도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업정책과 임업 관련 법규, 과수·약용식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기술, 유통기술 및 사업설계서 작성방법 등 임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제2기 과정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존과 달리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화상강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재를 개별 배송하고 실시간 응답을 수시로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수강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강의를 실시간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 동문 소식

### — 동문 동정

#### • 정용덕(식공69) 동문

2020년 2월 13일, 금강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

#### • 이강진 동문(농공85)

2020년 2월 17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승진임용

#### • 2020년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 강병원(농경제89)동문(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

– 김태호(농교육80)동문(무소속, 경남 산청)

– 박정(농생물81)동문(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 서범수(농경제82)동문(미래통합당, 울산 울주)

– 하영제(농교육74)동문(미래통합당, 경남 하동)

#### • 김경미(농가정 84)동문

2020년 4월 20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환경부장승진 발령

#### • 염태영(농화학80)동문

2020년 6월 24일, 제2회 거버넌스지방정치 대상 수상

#### • 주대영(농화학85)동문

2020년 6월 29일, 제32대 대구지방환경청장 부임

#### • 허태웅(농학85) 동문

2020년 8월 18일, 제29대 농촌진흥청장 취임

#### • 윤희진(축산63 다비육종 회장) 동문

2020년 10월 20일, NH농협은행이 수여하는 제7회 자랑스러운 농식품기업상 수상

#### • 손해일(잠사67 국제펜한국본부 이사장) 동문

2020년 10월 20~22일, 서울 프레지던트홀에서 ‘세계 한글문학, 시대의 장벽을 넘어-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을 주제로 제6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화상회의와 유튜브로 개최

#### • 김 훈(임학76 코린도 고문·인도네시아동창회 회장) 동문

2020년 10월 30일, 산림청이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임업인의 날 행사에서 국가 임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 수훈

#### • 윤석후(농화학73 삼양사 사외이사) 동문

유지생명공학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유지화학회(AOCS)가 수여하는 2021 AOCS Ching Hou Biotechnology Award 수상자 선정

# 동창회 소식

## — 동창회 소식

### • 2020년 새해인사회



1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농생대동창회 새해인사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입학 50주년을 기념하여 70학번이 주관한 행사로 서병륜 동창회장, 이석하 모교학장, 모교 명예교수 및 자문위원, 동창회 임원과 모교 동창회 동문 합창단(상록합창단), 70학번동문 등 180여 명의 참여로 풍성하고 성대한 경자년 새해를 열었다.

### •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2020년 제1.2학기 장학금지급

올해 1,2학기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행사는 취소하고 장학금은 장학생들의 계좌로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 2020년도 상록문화재단 장학생은 총 98명(학부생, 대학원생 및 중·고등학생 포함)이며 총 164,42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 • AFP스마트팜R&BD센터(주) 발기인 총회



10월 22일 오후 3시 75-1동 203호 회의실에서 AFP스마트팜R&BD센터(주) 발기인 총회가 거행되었다. AFP스마트팜R&BD센터(주)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으며 설립된 회사는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법인과 유통물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향후 설립될 각 전문위원회의 회사들의 설립자본금의 50%를 투자하고 아우르는 홀딩스, 즉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추진되었다.

### • 2020년 상록인 명예의전당 헌정식



11월 9일 오후 1시 모교 75-1동 202호에서 상록인 명예의전당 헌정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헌정자로 선정된 박원규(농공 60) 동문은 1967년부터 농촌진흥청, 농림부 및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35년간 공직으로 재직하였으며 우리 농업의 기계화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 • 제3회 상록문학상 시상식



모교와 동창회 주관으로 동창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상록문학상' 공모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가을에 제3회 상록문학상 공모전이 열렸고 11월 9일 11시 모교 200동 대회의실에서 제3회 상록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 • 서울대학교 상록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

서울대학교 상록 비즈니스 포럼(약칭, 상록비즈포럼) 창립 총회가 2020년 11월 13일 오후 5시부터 8시반까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개최되었다. 상록비즈포럼의 정기총회는 연 1회 사업계획 실적을 보고하고, 분기별 1회 사업성과 소개, 신규사업제안 전문가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다. 상록비즈포럼은 농생대 동문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동문 간의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 졸업생/재학생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비전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 퇴임교수 인터뷰

## 현재의 상황을 걱정하기 보다는 사회에 나갔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변우 교수는 1972년에 서울대학교 농학과에 입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본교에서 취득하였다. 기상청의 기상 연구사를 거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30여 년의 교수 생활을 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 변 우**  
식물생산과학부

### Q1: 목표와 교수가 된 계기

이변우 교수는 학위를 받은 후, 기상청에서 연구사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지형을 이용하여 상세 기후를 예측하고 이를 작물 생육모델과 연계하여 작물의 재배 입지와 기후적 생산성, 기후변화 영향의 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대학 교수로 부임한 후에도 이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며 성과를 얻음과 동시에 제자,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연구와 응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변우 교수가 교수라는 직업을 택한 계기에는 쌀을 자급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을 푼 통일벼가 있었다. 농학과 재학 중에 목도했던 허문회 교수의 통일벼 육성 연구가 이변우 교수를 연구자이자 대학 교수의 길로 이끌었다. 부임 당시 그의 연구실은 도작(稻作)실험실이었으나 작물생산환경학 연구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벼 재배생리에 대한 연구 이외에 농업기상과 작물 성장모델링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 Q2: 의미 있는 강의

이변우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이은웅 은사님의 뒤를 이어받은 수도작, 재배학, 도작특론, 작물연구방법론 등의 기존 강의 외에도 환경과 농업, 농업기상학, 작물성장수리해석론 등 새로운 과목을 개설해서 맡아왔다. 이 중 기억에 남는 강의로는 '작물성장수리해석론(crop growth modelling)'을 꼽았다. 이 강좌는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농업 분야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와 대응으로 관심이 모이기 시작할 때 매우 시의 적절하게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되었다. 더불어 그는 Crop growth model이 작물 생산성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서,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농업 연구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하며 연구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Q3: 무색무취(無色無臭) 교수로서

무색무취, 이변우 교수는 본인을 한 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다. 본인이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일들이 색깔이나 냄새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농학 자체를 연구하거나 학생들

# 퇴임교수 인터뷰



이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근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교수는 연구나 가르침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직업이다. 이 교수도 연구자로서 전공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여 얻는 성취감과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 동량이 되는 것을 접하는 즐거움이 교수라는 직업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았다.

## Q4: 새로운 목표 및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학교에서의 생활을 끝나치고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생활을 시작하는 이번우 교수는 벌써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다. 교수 시절에도 관심은 있었으나 하지 못했던 한문 공부가 그것이다. 그는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자리 잡으면서 먹거리로 삼아온 벼에 대해 옛 문헌에 나타난 역사적 자취들을 정리해보고 싶다고 한다. 은퇴 후 바로 시작한 것이 한문 공부인 것답게, 이번우 교수는 봄 새학기 첫 강의 시간에 “불환무이(不患無位) 환소이립(患所以立) 불환막기지(不患莫己知) 구위가지야(求爲可知也)”라는 공자의 말을 소개하곤 했다.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설 것인가를 걱정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나를 알아 줄 만하게 추구하라는 뜻이다. 이번우 교수는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고 있는 학부생들에게도 그저 현재의 상황을 걱정하기 보다는 사회에 나갔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학생기자단 9기 허지영, 13기 유시은

# 퇴임교수 인터뷰

## 바보 같은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틀린 답이 좋은 답입니다.

인터뷰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를 끝으로 퇴직한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이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인터뷰에는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는 그의 해변 가상 배경과 어울리는 햇살 같았다. 인터뷰 내내 따뜻했고, 교직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여과없이 드러났으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모니터 너머에까지 전달되었다.



**이 태 호**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의 연구 분야는 ‘농업 정책 계량 분석’으로, 통계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하여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하는 역할을 한다. 퇴임 후 근황에 대한 질문에 “퇴임했어도 아직 수업, 프로젝트, 자문 등이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 퇴직한게 잘 실감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 Q1: 교직 생활 회고

이태호 교수는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 후 추가 학습에 대한 필요를 느껴 연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한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4년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Cornell University에서 경제학석사, Iowa State University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와 한국식품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1년 반씩 근무했고 열심히 일했던게 교수님들 눈에 띄었는지 서울대학교 교수직에 올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교직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큰 계기랄 것이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혼자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교수라는 직업에 잘 맞았던 것 같다. 사람들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상대하는 대상이 희망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좋았다. 다음 생에도 다다음 생에도 이 직업을 택할 만큼 이 직업은 자유와 희망이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이며, 교직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는 ‘공익직불제’를 꼽았다. 공익직불제란 보조금을 통해 농업 활동에서 환경 생태 보호, 먹거리 안전, 농촌 공동체 강화 등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벼 농가나 대형 농가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는 기존 농업정책에서 벗어나서 타 작물 농가나 중소형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꾼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태호 교수는 이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자문을 담당하는 등 공익직불제의 형성과 시행에 큰 기여를 하였다.

### Q2: 한국 농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태호 교수는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미국, 아르헨티나 등 농업 강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히려

# 퇴임교수 인터뷰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식량 가격이 내려가고 이색적인 먹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등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이 낮고 정치가 불안하거나 전쟁 중인 국가들이라고 한다. 반면 믿을 수 있는 국내외 식량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은 큰 타격을 얻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신뢰를 공격한다. 내일 마트에 음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 수입능력 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태호 교수는 한국 농업이 농지가 넓지 않고 인구가 많으므로 여건이 비슷한 ‘유럽형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형 농업이란 농산물 생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관, 전통, 환경, 문화 등의 농촌 자원 개발도 중요시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 농업은 과도한 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의 손상, 밀집 축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제, 농민 소득 정체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잘 조성하여 농촌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농촌을 힐링, 휴양의 공간으로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를 소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들을 보조하는 제도가 공익직불제라고 말했다.

### Q3: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학생들을 위한 조언으로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보면 좋겠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틀린 답이 좋은 답입니다. 특히 서울대 학생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틀 밖에 나가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특히 오랜 학위 취득 과정을 버텨야 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긴 공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믿음으로 유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 학생기자단 11기 정민휴, 13기 조옥기

# 신임교수 인사



## 최창용

농림생물자원학부  
야생동물관리학 전공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과 양성, 연구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신임 교원으로서 농생대에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농림생물자원학부의 야생동물관리학 전공에 임용된 신임 교원 최창용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신규 감염성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과 야생동물, 축산동물 사이의 상호관계와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이 야생동물과 관련된 공중 및 축산 보건의 피해를 통제하고 저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교육과 연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갈등은 대부분 야생동물의 일방적 피해로 귀결되므로, 위협에 처한 많은 야생동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도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과 양성, 연구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신임 교원으로서 농생대에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인 산림의 관리와 경영, 종과 서식지의 복원을 넘어 농생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자원에 대한 연구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과 충고, 소통을 바탕으로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해소와 관리, 위협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전에 매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학력사항

- 1995. 3. - 1999. 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학사(해양학 전공)
- 1999. 3. - 2004. 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석사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전공)
- 2005. 3. - 2009.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박사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전공)

### — 경력사항

- 2010. 0. -2012. 3.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Secretariat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Science Officer
- 2012. 12. - 2014. 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조교수
- 2014. 5. - 2016. 12. 오클라호마대학교 공간분석센터, 박사후연구원 (미국지질조사국 서부생태연구센터, 겸임연구원)



## 유경록

농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며, 동물생명공학의 무궁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0년 9월 농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된 유경록입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을 서울대학교에서 마치고 미국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 연구 분야는 세포생물학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동물 및 사람 줄기세포의 항노화 및 기능 향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NIH에서는 유전자 가위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해 영장류 골수 세포 유전자 변이를 실시하고, 이어서 골수 이식을 시행함으로써 영장류 질병 모델 확립 및 치료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귀국하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다가, 올 9월부터 세계적으로 농업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합류하여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약물 및 수술을 통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서,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 신임교수 인사

선행되어야 하는 동물 질병모델 생산 및 효능 연구,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 효능 검증, 그리고 나아가 이종간 장기 이식을 통한 장기 부전 문제 해결 등 동물생명공학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며, 동물생명공학의 무궁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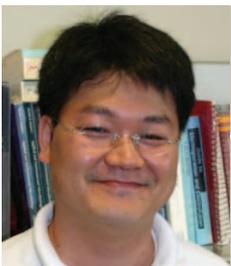
학부 시절 저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홍보동아리 CALSIAN에서 활동하며 저희 대학이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돕거나, 저희 대학을 지역 고등학교에 홍보하는데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연구하고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문과 산업의 교차점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미력하게나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학력사항

- 2004 - 200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전공 학사
- 2008 - 2013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사

## — 경력사항

- 2013 - 2014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조교수
- 2014 - 2018 미국립보건원 (NIH) 박사후연구원
- 2018 - 202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2020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전공 조교수



이 주 훈

농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안전하면서도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통한  
인체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9월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신임교수로 임용된 이주훈 교수라고 합니다. 금번 신임교수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시절에는 미생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통하여 유전체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장내 대표적 유익균인 비피

도박테리움의 유전체 연구, 그리고 박사후 연수과정에는 식품과 인체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장내 균총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 차의과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2012년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멀티오믹스 기술 및 생물정보학 기술을 바탕으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신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고유의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발효 기작 연구 및 건강 기능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내 식중독 사고 유래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체 연구를 수행하여 식중독균의 유전체학적 신속 검출 및 동정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하면서도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통한 인체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새로운 식구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주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학력사항

- 1991. 3. - 1997.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농학사
- 1997. 3. - 1999.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식품미생물학 전공 농학석사
- 2002. 1. - 2007. 6.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N, USA, 식품유전체학 및 마이크로바이옴학 전공, 이학박사

## — 경력사항

- 1999. 2. - 2000.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원
- 2000. 2. - 2001. 12.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생물자원연구소 연구원
- 2002. 8. - 2007. 6. Research/Teaching Assistant, U of Minnesota, USA
- 2007. 7. - 2010. 7. Postdoctoral Associate, Cargill Genomics Institute, U of M, USA
- 2010. 8. - 2011. 1. Research Associate, Cargill Genomics Institute, U of M, USA
- 2011. 2. - 2012. 2. 차의과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
- 2012. 3. - 2020. 8.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 2017. 8. - 2019. 2. Visiting Professor, Dept. of Food Science, U of Minnesota, USA
- 2020. 9. -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부교수

#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 학부연구생 프로그램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을 통해 짧게나마 대학원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등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우들이 참여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김용태 학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연 2회 전공에 대한 이해 및 연구에 대한 흥미 유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Research Fellowship Program(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학 동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대학원생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생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보기 위해서 지난 방학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업인력개발학 전공 16학번 김용태 학우를 만나보았다.

CALS 홈페이지의 재학생 역량 개발 로드맵에는 학문적 역량 향상을 위해 신입생 전공 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Global challenger program,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 농산업 start-up 창업 교육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김용태 학우는 신입생 전공 탐구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학부 연구생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다른 학우들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선택지 중 하나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생활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프로그램 참여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 생활이 본인에게 맞는지,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에 관한 궁금증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김용태 학우는 최수정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하였다.

최수정 교수의 연구실은 'Take a first step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VEWD!' 라는 슬로건 하에 직업 기술 및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있다. 해당 연구실에서 김용

태 학우는 개발도상국 농업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농업 교육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자간 국제 개발 협력을 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의 권역별 특징과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한다.

학부연구생이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면서 맡는 역할은 연구실 및 주어진 과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해당 학생이 전공 분야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수준의 역할을 배정한다. 김용태 학우는 프로젝트 관련 전공 수업을 많이 이수하지 않아 자료 조사 위주로 진행했다. 연구실에 따라 학부연구생이 직접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곳도 있으니 학부연구생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에 대해 잘 알아보면서 자신이 체험해보고 싶은 분야를 고르면 된다.

김용태 학우는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을 통해 짧게나마 대학원 생활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등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우들이 참여해보면 좋을 것이다. 같은 전공의 선배들로부터 직접적인 조언을 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막연한 학우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은 연구 자체에 대한 경험과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생기자단 9기 허지영, 13기 허소영



#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 융합창의연구 프로그램

**‘융합’과 ‘창의’라는 키워드가 더 와닿았고 한 가지 성격이 뚜렷한 국가과제와 달리 대학원생이 가진 여러 아이디어를 융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경 학우



강준석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다학제 간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융합 연구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1회 ‘대학원생 융합 창의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농생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2개 이상 전공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설계 및 수행하여 연구 성과물을 창출해내면 된다. 올해는 6월 첫째 주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였고, 6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현재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12월 둘째 주 화요일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융합 창의연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담을 들어보기 위해서

2020년 융합 창의연구 대상자로 선발된 조경학 석사과정 김재경 학우와 그의 지도교수인 강준석 교수님을 인터뷰하였다.

김재경 학우는 조경·토목·건축·환경·스마트시티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조경건설 공학연구실에서 재학 중이다. 그중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와 함께 주목받는 ‘스마트시티’가 주력 연구 분야로, 취약지역 일대를 열환경 센서로 계측하고 자동화 저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그 예이다. 앞으로는 벽면녹화 패널이나 저영향개발 시설이 함께 시공될 예정이다. 그의 대학원에 진학 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문에 대한 갈증이라고 이야기했다. 대학에 진학할 당시에는 조경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공부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관을 계획하고, 설계, 시공, 관리하는 전 주기적인 조경학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융합창의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농생대 연구기획지원실장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연구지원부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강 교수님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원

생들은 대외적으로는 연구자라고 불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구수행자 혹은 실무자의 역할로서, 수동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융합’과 ‘창의’라는 키워드가 더 와닿았고 한 가지 성격이 뚜렷한 국가과제와 달리 대학원생이 가진 여러 아이디어를 융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경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분야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기존 환경에서는 두 연구를 모두 수행할 수 없지만 ‘융합창의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지원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학기 심사에 합격하고, 7월부터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대했던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몸소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로서 도전과제에 맞춰 기획부터 수행,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지원조건인 타 전공이나 타 학교와의 융합 연구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을 꼽았다. 작게 보면 한 가지의 연구 과제를 융합하는 과정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기술 융합에 부합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 김재경 학우의 발표자료에서 얻음)

김재경 학우는 ‘UAV Drone을 이용한 3차원 공간 Mapping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최적화 매뉴얼 개발’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도시의 외관을 설계하고 경관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 그 공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항공 드론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해당 연

## 재학생 역량 프로그램 인터뷰

구는 무인항공 드론의 운영, 3D 공간 지도 제작, 그리고 수목 등 조경 시설물의 유지 관리 이 세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협동과정' 대학원생 한 명,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대학원생 한 명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재경 학우의 지도교수인 강준석 교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강 교수는 본래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공과대학의 교수직을 역임하다가 2017년 서울대학교 조경학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조경이라는 것은 단지 구조물을 아름답게 설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효율적, 경제적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공간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어찌보면 학제간 융합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생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한마디를 하면서 말을 줄였다. '대학원생 융합 창의 연구'와 '학부생 창의연구'를 모두 경험해본 학생으로서 이 두 프로그램은 협의적으로는 과제를 수행하고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융합창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광의적 의미도 지닌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교수님께 연구 조언을 받고 장래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받으며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고 국내 학술대회 참석의 기회도 넓힐 수 있다고 한다. 자신도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농생대의 연구 능력을 타 학과, 대학과 융합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게, 드론을 이용해 공간 맵핑을 진행하고 최적화된 공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학생기자단 11기 정민휴, 13기 허소영



강준석 교수 연구실 구성원과 함께한 사진 촬영

# 학생 일반

## 농생대 전공로드맵 안내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해 선후배와의 교류가 적어지고 신입생들이 혼자 대학 생활을 해야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차원에서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공 로드맵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길어 보였던 방학이 끝나가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늘상 '이번에는 어떤 전공 과목을 들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게 된다. 대다수의 학생이 학과 자체적으로 마련된 표준 이수표를 참고하거나, 선배의 조언을 얻어 수강할 전공 과목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 이수표가 농생대 내 모든 전공에 존재하지는 않으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선배와의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번 36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봄' (이하 학생회)에서는 농생대 전 학부와 전공을 대상으로 전공로드맵을 제작하였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전공로드맵을 계획하고 제작한 학생회 교육 TF 팀장 김진현(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19학번) 학우, 교육 TF 이한수 학우(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20학번)을 만나보았다.

학생회는 농생대 내에서 발생하는 학업이나 진로 문제에 있어 학생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단과대학으로 다전공을 진행하는 농생대 학우를 위한 다전공생 지원 사업, 전공 과목이나 자격증 공부를 위한 모임을 개설해주는 스터디 지원 사업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전공 로드맵 제작 역시 이 사업의 일환이다. 전공 로드맵 제작을 계획한 학생회 교육 TF는 생긴지 1년 남짓의 신생 TF팀이며, 구체적인 정체성은 아직 논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공 로드맵 제작 계기에 대한 물음에 김진현 학우는 평소에 과 행사에서 선배와의 교류를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 왔다고 답하였다. 수강 신청 방법부터 전공 수업 선택까지 세세하게 선배와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해 선후배와의 교류가 적어졌고 신입생인 20학번이 혼자서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이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고, 전공 로드맵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하였다.

전공 로드맵에는 농생대 공통 이수 규정 및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을 표시한 전공 이수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전공 수강에 도움 되는 선수 과목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공생이 수강하는 전공 선택 과목도 표시하고 있다. 정보의 출처에 관한 물음에 행정실에서 제공하는 전공 내규 및 농생대 학생 설문조사, 회장단의 자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정보 수합 후 체계화를 거쳐 전공 로드맵을 완성하기까지 약 4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완성된 전공 로드맵은 농생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공 로드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체계 안에 다양한 출처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통일성 있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체계화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 로드맵 안에 수록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을 했고, 농생대 각 전공의 회장에게 자문을 받아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전했다.

학생회 구성원으로서 농대 학생에게 바라는 점에 관한 물음에 이한수 학우는 학생회 사업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 점으로 꼽았다. 소수의 학생회가 다수의 학생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학생회 사업에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잘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곧 입학하는 21학번에게 전공 로드맵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학생회 교육 TF팀 이한수 학우, 김진현 학우

# 학생 일반

전공로드맵은 특히 정보를 얻기 힘든 신입생인 20학번에게 필요했을 것이다. 2명의 20학번 학생(산림과학부 최예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안광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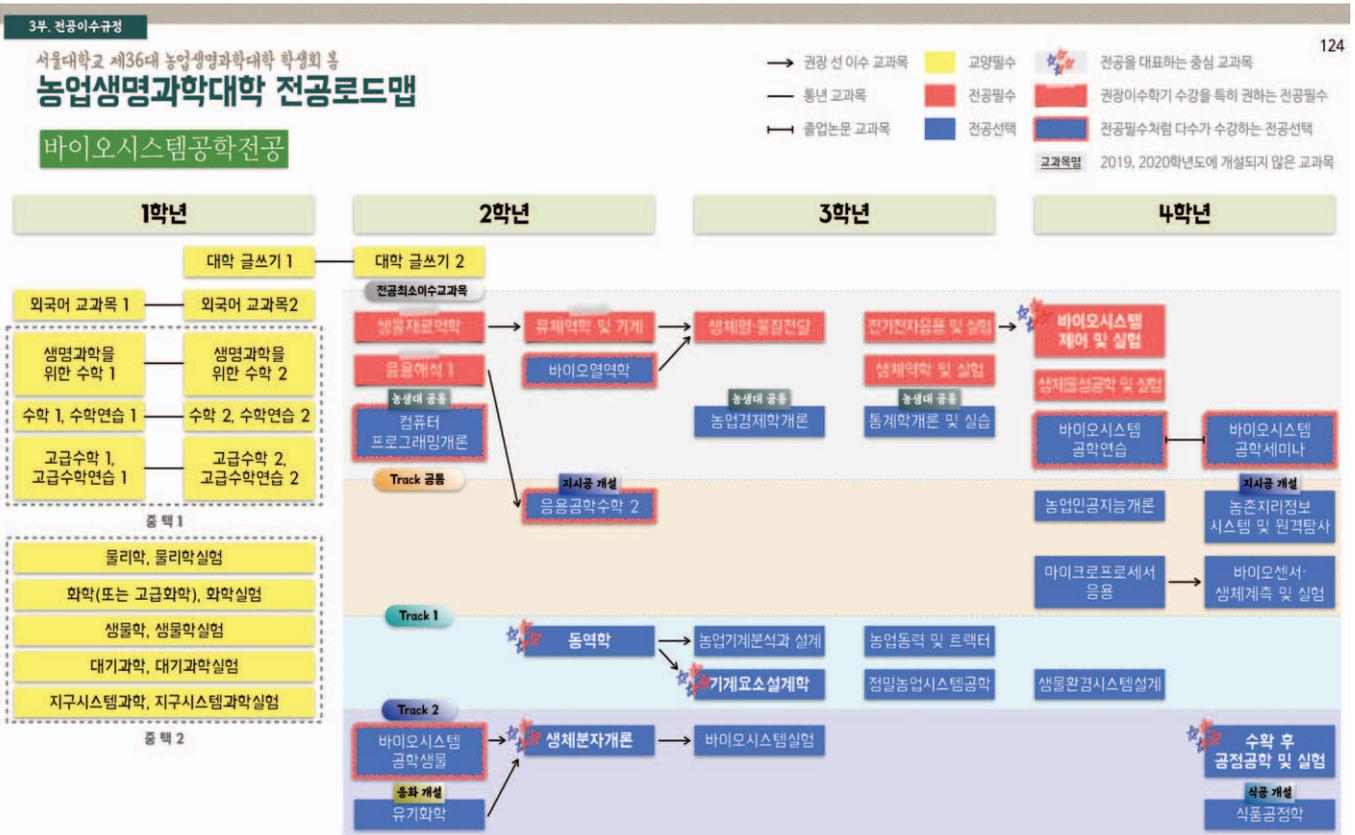
두 학생 모두 가장 유익한 정보로 각 과별,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을 정리해둔 표를 언급했다. 학년에 따른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정리해주어 후에 무슨 과목을 들어야할 지 생각해볼 수 있었고, 각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 내용을 비교해가며 관심사에 부합하는 과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업계획에 있어 전공로드맵이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냐는 물음에 최예원 학생은 “전공필수/선택 과목을 미리 파악하여 학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확실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민 학생은 “내년에 전공 진입 후 시간표를 짤 때 참고하면 언제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전공을 따라가는 과정의 길잡이가 생긴 것 같고 고민을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장 앞에 주어진 일들만 해도 바쁜데, 전공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과 생활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한 전공로드맵을 통해 앞으로의 학업계획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부생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농생대 학생회 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입생으로서 아직 학교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게 많았는데 전공로드맵을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활동 부탁드립니다.”라며 36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봄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농생대 전공로드맵은 이듬해 ‘선배의 팁’ 부분에 피드백을 받아 보완을 할 예정이다. 피드백을 통해 후배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싶은 농생대 재학생은 다가올 학생회 공지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 학생기자단 13기 신수빈, 13기 유시은



전공로드맵 예시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 장학금 수혜자 기고문

## 목운장학금 수혜자 기고문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 서 진

바이오소재공학전공

인류에게 도움이 될 소재를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소재공학 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로 소재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재료를 만들고 합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직접 실험도 해보고 천연 소재들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 대학원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장학금입니다. 물론 저의 꿈을 이루고자 대학원에 진학하였지만 경제적인 도움 없이 오로지 연구에만 매진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석사에 입학하자마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았을 때 이 취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 번 새겼습니다. 선배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보면 분명 힘든 순간이 올 것이고 그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연구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고민이 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때마다 저를 독려시켜주는 것이 이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제가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학부 동안에도 여러 장학금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대학원에서도 제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도움들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 꾸준하게 연구하여 서울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목운장학금 개요

### ● 기금 조성

한인규 (재)목운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우리나라 농업 생명과학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농업생명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최우수 졸업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및 격려를 위하여 발전기금 1억원의 출연으로 조성

### ● 장학금 지급

#### • 개요

- 명칭: 졸업 최우수 목운 장학금
- 재원: 한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출연한 발전기금
- 기금: 1억원(년간 4% 이율발생)

#### • 장학금 수여

- 수여: 매년 3월초, 9월초(2회)
- 포상: 장학증서(학장명인), 장학금(2백만원)
- 현재 62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총 8억 3천여만원의 장학금 지급

#### • 장학생 선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해당 연도 졸업생 중에서 농업생명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최우수 학생

# 발전기금 출연자 인터뷰



## 이 성 계 동문

79학번, 농화학과  
(현 응용생명화학전공)

“

지금 20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했지만  
여러분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는데,  
많은 것에 도전해보는  
것으로 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Q1: 기금 출연자 소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에도 꾸준히 기금 출연을 통해 많은 기부자들이 농생대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 중 농생대에 발전 기금을 기부한 이성계 동문(79학번, 농화학과(현 응용생명화학전공))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성계 동문은 농화학과를 83년에 졸업하고 본교 농약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원 졸업후 1986년 인삼공사연구원에 입사하여 31년간 근무하다가 2018년 3월에 퇴직하였다. 현재는 인삼공사의 추천으로 고려인삼학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인삼 업계에서 오래 근속한 종사자로서 인삼 산업계와 인삼 학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Q2: 어떻게 기금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나

이성계 동문의 고향은 강원도 묵호(현 동해시)이고 강릉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1980년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두달 반 간 휴교를 하게 되면서 잠깐 본가에 내려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지도 교수님이었던 임선옥 교수님께서 가정 방문하셨는데, 어려운 가정환경을 보시고 ‘대여 장학금’을 추천해 주셨다고 한다. 학교로부터 월 5만원 씩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대여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이번 기금 출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대여 장학금이기 때문에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지만, 방법도 경로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고 한다.

2018년 3월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면서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 기금 출연 형식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기금이 과거 자신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학생들도 훗날 후배들에게 다시 도움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Q3: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

20대 학생들을 위한 조언으로 최대한 많이 도전하고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 20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했지만 여러분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는데, 많은 것에 도전해보는 것으로 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 Q4: 발전 기금, 어떻게 사용되나

이성계 동문을 비롯한 여러 기금 출연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발전 기금은 장학금, 해외 연수비, 시설 장비 첨단화, 연구 기관 지원, 전공혁신 지원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는 CALS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늘어난 연구 규모에 따라 교육 및 연구 공간 확대가 시급해지면서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모음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발전 기금 사용처와 출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학생기자단 13기 신수빈, 13기 조옥기

# 발전기금 출연내역

##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소식

역대누적금액 40,824,737,110원

기금출연 (2020. 04. 01. ~ 2020. 10. 22.)

당기누적금액 918,627,204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이현수(농화학과 60)	287,700,000	(주)누보	7,000,000	강문성	700,000
도부라이프텍(주)	200,000,000	이학래	7,000,000	송인홍	700,000
이성계 강선영	100,000,000	(주)엠바이움	6,000,000	최 원	700,000
(주)카길애그리퓨리나	89,400,000	최인규	6,000,000	정봉진	600,000
피피에스	50,000,000	정창주	5,000,000	한경석	600,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4,220,604	이제근	5,000,000	김 준	583,310
녹색환경지도자최고위과정(GELP)	17,000,000	윤혜정	4,250,000	손영환	583,310
(주)애니원	12,000,000	(주)블루비에스	4,200,000	최진용	499,980
이호진	10,000,000	(주)위트	2,000,000	강상호	350,000
(재)국가농림기상센터	10,000,000	윤여창	2,000,000	우제성	300,000
(주)뉴트리셀바이오	10,000,000	(주)한성티앤아이	2,000,000	양태진	300,000
김태정	10,000,000	오정권	2,000,000	윤철희	300,000
아시아종묘(주)	10,000,000	강규영	1,500,000	임용재	300,000
이병일	10,000,000	윤철희	1,300,000	구영주	300,000
차상석	10,000,000	(주)아이콘	1,260,000	서민영	200,000
		유재형	1,000,000	김대우	180,000
		정석규	1,000,000	김동진	180,000
		곽효원	1,000,000	김성배	160,000
		허길행	1,000,000	박준호	120,000
				류준구	70,000
				손창은	70,000

## 농업생명과학교육 · 연구센터 건립기금 모금안내

역대누적금액 2,627,902,000원

기금출연 (2020. 04. 01. ~ 2020. 10. 22.)

출연합계 317,990,000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이현수	287,700,000	윤혜정	4,250,000	정봉진	600,000
(재)국가농림기상센터	100,000,000	강규영	1,500,000	한경석	600,000
(주)뉴트리셀바이오	100,000,000	유재형	1,000,000	양태진	300,000
		허길행	1,000,000	윤철희	300,000
				임용재	300,000
				김동진	180,000
				서민영	140,000
				박준호	120,000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혜택 및 출연방법 안내



## 참여방법

-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농생대 기획전략본부로 전화(☎ 02-880-4510)를 주신 후,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거나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약정은 홈페이지([www.snu.or.kr](http://www.snu.or.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006-601-280134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지로입금 | 지로입금을 희망하실 경우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별도로 보내드리며, 지로용지를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 참여 신청서에 은행계좌 및 이체일을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납입됩니다.
- 신용카드 | 참여 신청서에 카드명 및 카드번호를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납입됩니다.
- 교직원 급여공제 | 서울대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농생대 기획전략본부

전화 02-880-4510 팩스 873-5579 이메일 [cals75@snu.ac.kr](mailto:cals75@snu.ac.kr)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전략본부

홈페이지 농생대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서울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www.snu.or.kr/new/?page\\_id=9897](http://www.snu.or.kr/new/?page_id=9897) 또는 [www.snu.or.kr](http://www.snu.or.kr)

# 예우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예우프로그램

구분	내용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패					감사장
	기념품, 서울대 달력					
	전시회·공연 초청					
기부자 명예 헌정 및 예우	명예의 전당 등재					
	기금 명칭 부여					
	총장 공관 만찬 초청					
	근조기 배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의전 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종합건강검진 주선	평생	평생	기한		

## 농업생명과학대학 추가 예우프로그램

내용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학장과의 만찬						
공간 네이밍						
학술림 숙소 이용	평생	5년	2년	1년		
기부자 벽 명패						
가구 네이밍						
농생대 행사 초청						

# CAL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참여신청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1. 기본정보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type="checkbox"/> 음력 년 월 일
우편수령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주소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자택번호 : 직장번호 :	직장정보 직장명 : 부서 : 직위 :
<input type="checkbox"/> 동문 학과(특별과정) : 입학년도(기수)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생성명 : 학부(과) : 입학년도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부서 : 직위 :

## 2. 약정정보

희망사용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및 농생대 발전기금 (농업생명과학대학 위임, 보통재산)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액후원 일금 ₩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년 월 ~ 년 월(회 분납)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 원씩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기부동기 (남기고픈 말)	

## 3. 납부방법 (택 1)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농협 079-17-000136 <input type="checkbox"/> 신한 100-014-328209 <input type="checkbox"/> 우리 1006-601-280134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카드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 <input type="checkbox"/>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	---	---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필수정보	회원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정보 수집 및 제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선택정보	회원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정보 수집 및 제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정보제공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정보 수집 및 제공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 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및 농생대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	□	—	□	□	□
---	---	---	---	---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기획전략본부 200동 3003호  
 Tel. (02) 880-4510 / Fax. (02) 873-5579  
<https://cals.snu.ac.k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기획전략본부 200동 3003호  
 Tel. (02) 880-4510 / Fax. (02) 873-5579  
<https://cals.snu.ac.kr>